

# 승진하려면 사고쳐야? ... 광주교육청의 '거꾸로 인사'

## ■ 원칙·여론보다 정실인사 교육계 '술렁'

광주시교육청 인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비리 공직자를 직속기관장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대형사고를 친 인사들이 줄줄이 승진·영전하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승진하려면 사고쳐야 한다'는 비아냥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사 214명, 교감 29명, 교육전문직 24명 등 총 283명에 대한 9월1일자 정기인사를 지난 23일 단행했다. <명단 18면>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중징계 비리 공직자 '발탁' =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장휘구 교육감이 '특혜 비리'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사를 직속기관장으로 발탁, 청렴 의지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정보원에 발탁된 김재화 동림초 교장은 지난 2008년 정보 기획담당 장학관 재직 당시 초·중·고 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 학교에 특정회사 제품만 구입하도록 시방서를 시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장 교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으로 김 교장과 업무담당자는 물론 국장, 과장까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교장은 이번 인사에서

## 비리 중징계 받은 인사 직속기관장으로 발탁

### 과학경시대회 책임자 공식사과 불구하고 영전 끊임없는 인사 잡음 교육행정 불신 자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원으로 발탁됐다. 5년 전, 자신이 '사고'를 친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영전한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혜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를 관련 업무 책임자로 발탁한 것은 장 교

육감의 청렴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사고 치면 승진·영전=대형사고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산 인사들이 잇따라 승진·영전했다. 지난 3월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박승재 교원인사과장에 이어 이번엔 박무기 과학·정보담당 장학관이다. 박 장학관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른 중·고교생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 합산 과정에서 수험생 107명의 점수를 누락해 입상자 87명이 뒤바뀌고 수상이 취소된 여처구니 없는 사태의 담당자다.

박 장학관은 문책은커녕 교육정보원 교육지원부장으로 영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사에서 당시 고교 강제배정 사태로 비난을 샀던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정적기획관으로 영전했다. 김 과장은 고교배정 방식에 성적을 포함하면서 최근 수년간 발생하지 않던 강제배정 인원을 687명이나 양산하고, 통학하는 데 2시간이 넘는 원거리배정의 장본인이다. 임용고시 재시험이라는 조류의 사태를 초래한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은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임명됐다. 박 과장은 지난 1월10일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수로 시험이 중단되는 사건의 담당 과장이었다.

◇인사 때마다 정실·잡음=장 교육감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인사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문책 인

사 여론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영전시킨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철저히 무시하는 소용 부재의 한 단면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직속기관장에 임명하고 교육청이 공식사과까지 한 과학경시대회 사태의 책임자를 영전시킨 것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사고 친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불합리한 인사를 언제까지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가 답답하다"며 "장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며 교육행정을 불신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4원침 (8872) 김장두



## 무단횡단 2명 승용차 치여 사망

### 광주 신안고 인근 ... 1명은 두차례 걸쳐 사고 당한 듯

빗길,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2명이 차에 치여 숨졌다.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다리 인근 도로에서 정모(53)씨와 최모(여·48)씨 등 2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정모(63)씨가 불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였다.

보행자 정씨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맞은편 도로에 쓰러졌다가 마주 오던 이모(28)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또다시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1·2차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최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정씨가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

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보행자 정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이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사고 직후 현장에 멈춰지만 "스타렉스 운전자 사고를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듣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 귀가한 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옛 남구청사 별관에서 남부경찰 소속 과학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현장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전기 끊긴 옛 남구청사에 불 ... '방화' 수사

### 인명피해는 없어

옛 광주 남구청사 별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옛 남구청사 별관 2층에

서 불이나 조립식 건물 177㎡와 내부에 있던 책상과 의자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20여분에 꺼졌다.

불이 난 건물은 지난 4월, 남구청이 주월동 신청사로 이전한 뒤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청사로 이전 뒤 건물의

전기설비가 끊겼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방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무안서 조개 캐던 60대 숨져

25일 오전 9시께 무안군 현경면 한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러 간 서모(여·60)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포해경은 서씨가 갯밭 사이 큰 돌길을 건너려다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거문도 해상 낚시 어선 불 선원 19명 모두 구조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7.5마일 해상에서 소화선적 9.77t급 낚시 어선 뉴골드호에서 불이 났다. 어선엔 선원 19명이 타고 있었으나 화재 당시 인근 해상을 지나던 9.77t급 낚시 어선 골드스타호와 헤라클라스호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 불을 끈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배를 여수 소호항으로 임항시켰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고교생이 아간운동 여성 성추행

○'늦은 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10대 고교생이 경찰서행.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M(16·광주 모 고교 1년)군은 지난 5월 4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A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B(여·23)씨의 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더듬고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M군의 범행 수법으로 미루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인데, M군은 경찰에서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육사생도가 미성년자 성매매

### 휴대전화 훔친 혐의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육사 4학년 A 생도가 지난달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7세 가랑의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생도는 성매매 후 이 여성의 휴대전화도 훔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 생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22일 A 생도를 붙잡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군 검찰은 A 생도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생도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는 오늘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훈육요원의 책임 강화 방안 등 잇따른 생도 일탈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아침마당 출연자의 등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토론자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장소	교육대 평생교육원
일시	매주(화) 주간 : 10시 야간 : 19시
연락처	062)520-4243
장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시	기본반 매주(수) 15시/ 19시 실전경매 매주(목) 14시/ 19시
연락처	062)530-3873~5

강의료 12만~18만 (4개월 강의료)

특전 : 공인발판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취득 하도록 책임지도

2013년 2학기

##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 9. 21(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돔 삼계탕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촌닭백숙 삼계탕

토종참돔담 (9인분, 식사 술 포함) 40,000원  
촌닭백숙 38,000원

욱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괴음 및 숙취해소 / 정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욱담 062)515-5757(욱칠욱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비뷰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